

삶은 달걀

북극곰 꿈나무 그림책 37



글 이루리 그림 나명남

이루리 글 | 나명남 그림 | 북극곰

#상상력 #상상놀이 #이중적의미 #비유하기 #이유찾기 #생각놀이 #창의적사고

학교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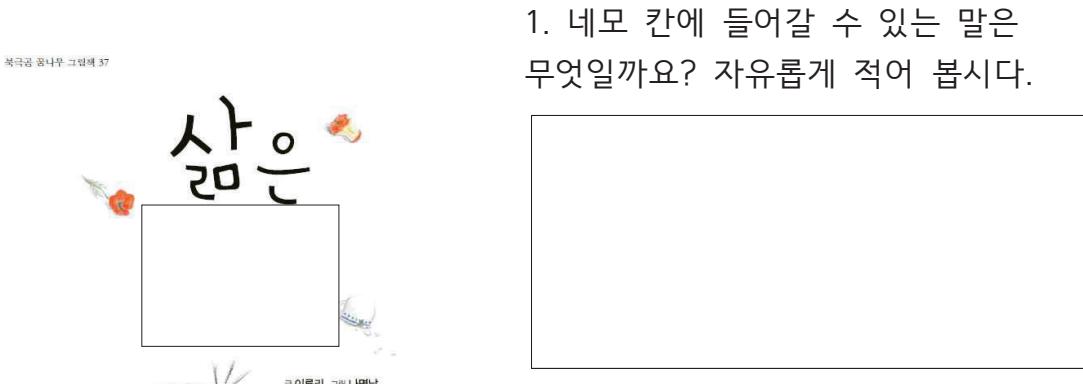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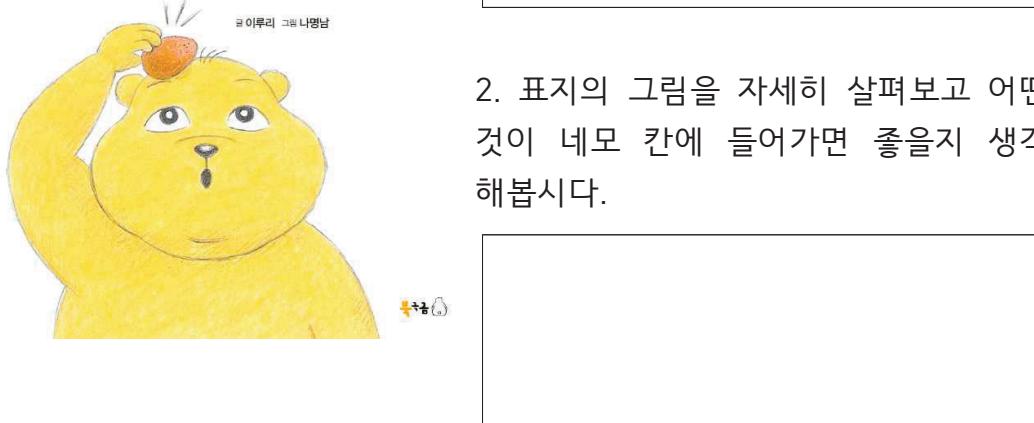
<활동지 1>



1. 네모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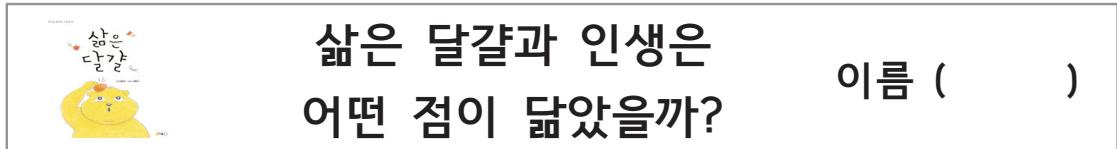


2. 표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것이 네모 칸에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3. 곰과 삶은 ()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목과 표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내용일지 자유롭게 상상하며 예상해 봅시다.

<활동지2>



이 그림책에서는 삶을 ‘삶은 달걀’로 비유했습니다.

먹는 ‘삶은 달걀’과 ‘인생’의 어떤 점이 닮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의미에 대해 적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책 문장	인생 삶과 비슷한 점
‘삶은 달걀이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껍데기를 까야 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물이랑 같이 먹어야 목이 막히지 않아.’	
‘근데 네 달걀은 완숙이야, 반숙이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	
‘삶은 달걀이야. 작지만 완전한 우주지.’	
‘근데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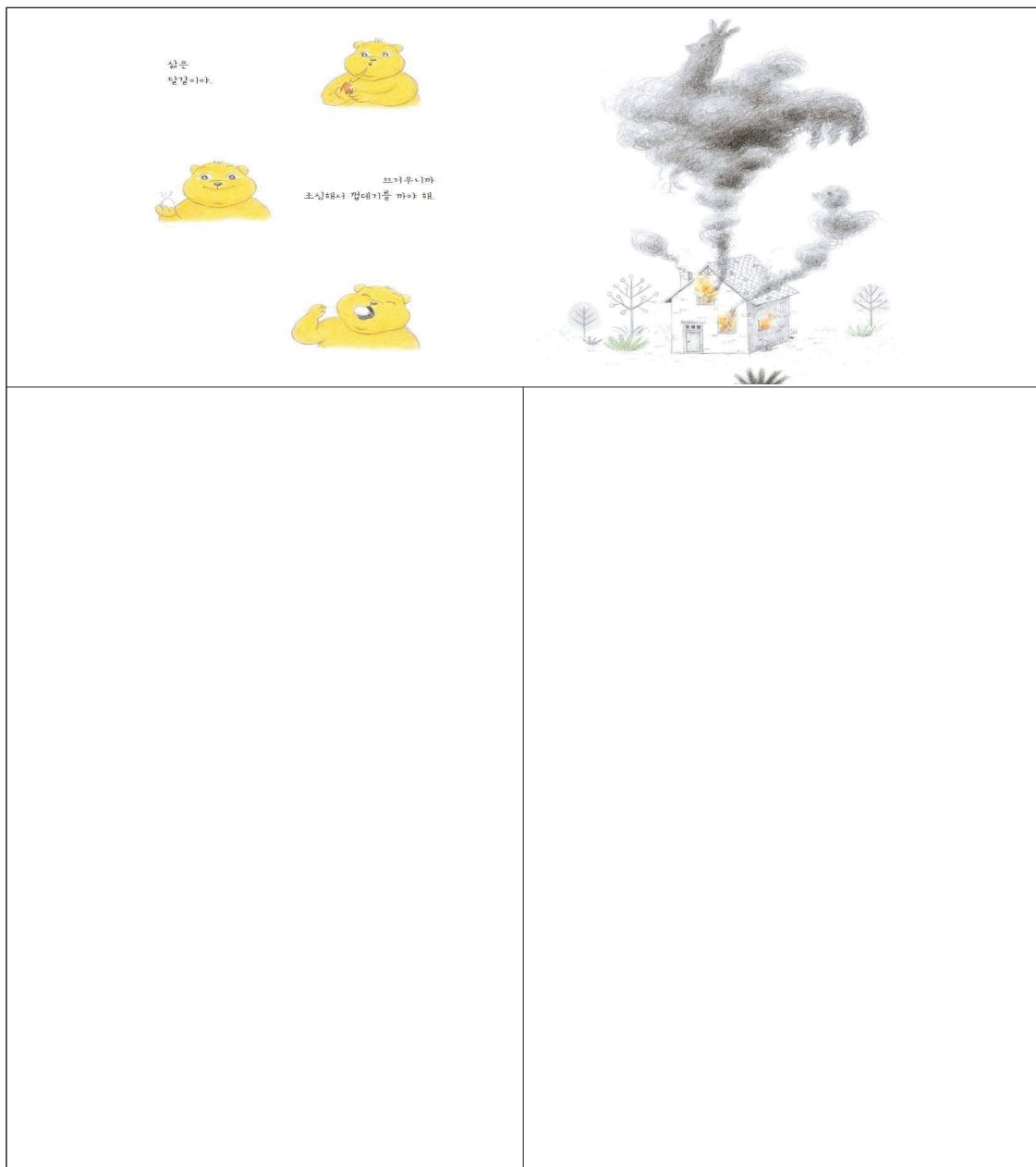
삶에 관한 그림책 만들기 이름 ()

1쪽	앞표지 제목
2쪽	뒤표지
3쪽	6쪽
4쪽	5쪽

<활동지4>



이 그림책에서는 문장과 그림을 반대로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 시간에 만든 그림책의 한 문장을 가져와 반대의 의미로 그려서 재미있게 표현해 봅시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문장을 가리고 그림만 친구에게 보여주고 가려진 문장을 맞추는 놀이를 해 봅시다.



삶은 달걀



#상상력 #상상놀이
#이중적의미 #비유하기
#이유찾기 #생각놀이
#창의적사고

이루리 글 | 나명남 그림 | 북극곰

주제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교육 과정 연계	<p>국어</p> <p>[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p> <p>[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p> <p>[6국05-03]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p> <p>미술</p> <p>[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p>
작성자	서울 월곡초등학교 남진희 선생님

■ 도서 소개(출판사 제공)

로댕의 ‘생각하는 곰’을 아시나요?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 ‘생각하는 곰’이랍니다. ‘생각하는 곰’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쩔 땐 밤새도록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생각인지 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곰은 삶은 달걀을 생각해요. 삶은 달걀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껍데기를 까야 해요.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해요. 게다가 목이 막힐 수 있으니까 물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 곰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낳았어요. 그런데 곰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냥 삶은 달걀일까요? 『삶은 달걀』은 ‘삶은 달걀’이라는 농담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삶은 달걀은 ‘A boiled egg’라는 뜻이면서 ‘Life is an egg.’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곰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곰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요? 삶은 달걀은 생각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신통방통한 그림책입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그림책에 나타난 비유하는 표현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자신이 생각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물에 비유하여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 친구들이 만든 ‘삶을 비유하는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수업 준비

생각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곰은 삶은 달걀을 먹으며 삶은 달걀에 관해 설명한다. 가만히 잘 들어 보면 삶은 달걀에 대한 것인지 우리 인생 삶에 관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진다. 과연 곰이 말하고 싶은 것이 ‘삶은 달걀’일까, ‘삶은, 달걀’일까? 밤새도록 한 가지에 몰두하여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면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때가 있다. 아마도 곰은 삶은 달걀을 먹으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것 같다. 학생들도 이 그림책을 통해 한 가지에 몰두하여 생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더 멋진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즐거운 경험이 많이 쌓이길 바란다. 이 수업 지도안에서는 한 가지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비유하기’라는 생각의 기술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비유하기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대상을 좀 더 생생하고 풍부하게 혹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비유했는지 그 생각의 이유를 묻고 대답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도 키울 수 있다. 이 그림책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삶은 무엇인지 사물에 빗대어 비유로 표현해 보고, 친구들과 각자 가진 생각을 나누며 다양한 비유가 주는 풍성함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A4용지 또는 도화지, 색연필과 사인펜 등의 표현 도구, 활동지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1
읽는 중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기	
	내용 파악하기	1
	비유하는 표현 알기	1
읽은 후	'삶은 < >' 그림책 만들기	1
	그림책 발표하고 감상하기	1
	거꾸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1

읽기 전

1. 표지 살펴보기 <활동지1 참고>

■ 제목 예상하기

-표지에 나온 제목『삶은 달걀』에서 달걀을 종이로 가리고 표지를 보여줍니다. 삶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살펴보며 자유롭게 대답해봅시다.

예) 양배추, 파스타,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달걀 등

-표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예) 감자인 거 같기도 하고, 달걀인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 같기도 해요. 달걀이 익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 중, 어떤 것이 이 책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고구마가 어울려요. 왜냐하면 곰이 고구마를 좋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달걀일 것 같아요. 곰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달걀인 것 같아요.

-정답은 삶은 '달걀'입니다.



2. 내용 예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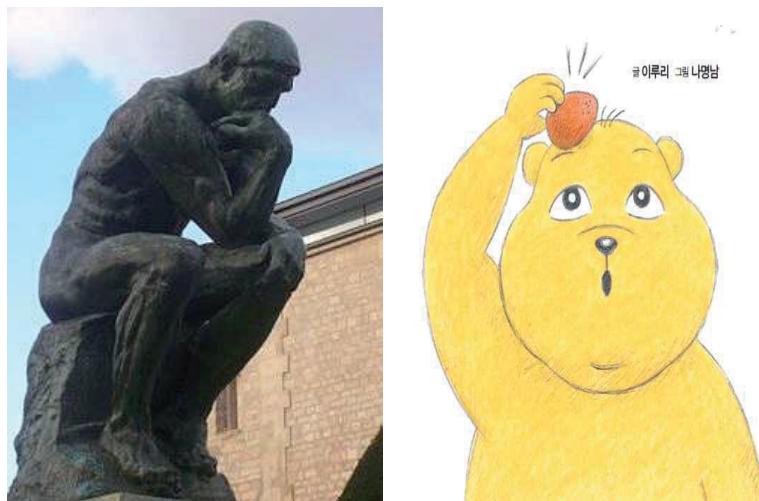
■ 내용 예상하기

-삶은 달걀이라는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예) 삶은 달걀을 맛있게 먹는 곰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삶아서 요리하는 것도 삶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요.

-곰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곰을 표정과 몸짓을 따라 표현해 봅시다. '생각하는 로댕'과 이 곰이 닮은 점이 있나요? 생각하는 곰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는 자세를 각자 재미있게 표현해 봅시다.



예) 곰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익은 달걀인가, 익히지 않은 달걀인지 흔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표정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인 곰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곰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며 함께 그림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중

1.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 주기

■ 그림책 읽기

Tip. 곰이 말하는 것처럼 곰의 표정을 따라 하며 생생하게 읽어 주면 더욱 좋습니다.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기

■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기

- 어떤 장면이 재미있거나 인상적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불이 막 나고 있어요. 말하는 것과 진짜 일어나는 일이 달라서 재미있었어요.

마지막에 닭이 곰의 달걀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자신의 아기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삶은 달걀이 아닐까요?

3. 내용 확인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여러분은 밤새도록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적이 있나요?

예)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무엇이 되면 좋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와 다투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 여기서 나오는 곰은 어떤 곰인가요?

예) 생각하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엉뚱하고 재밌어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 이 그림책에서는 문장과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문장이랑 반대되는 그림이 같이 나와요.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목이 막히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물이랑 안 먹어서 목 막혀서 쓰러지고 있어요.

- 왜 이렇게 문장과 그림을 다르게 그렸을까요?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더 자세히 그림을 보도록 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 주는 것 같아요.

4. 비유하는 표현 알기

■ 그림책 속 비유하는 표현 찾기

- 이 그림책에서 '삶은 달걀'은 먹는 삶은 달걀일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일까요?

예) 그림책 마지막 문장 '삶은, 달걀이야!'라고 바꿨는데, 두 개 다 말하는 것 같아요.

- 이렇게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 그림책에서는 삶을 '삶은 달걀'로 비유했고,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왜 비유를 사용할까요?

예)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해 주는 것 같아요.

더 생생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려 볼 수 있어요.

- 먹는 삶은 달걀과 인생이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Tip) 그림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님을 명시해 주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열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림책 문장	인생 삶과 비슷한 점
‘삶은 달걀이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껍데기를 까야 해.’	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살아야한다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늘 있으니까 다 믿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 같기도 해요. 등.
‘소금에 찍어 먹어야 더 맛 있지.’	맛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니 잘 먹고 살자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어야 더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 같아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목이 막히지 않아.’	천천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잘 갈 수 있어.
‘근데 네 달걀은 완숙이야, 반숙이야?’	네 삶은 완성된 상태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야? 너는 지금 공부하고 있니? 아니면 공부를 다 마쳤니?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	욕심을 부리면 다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밌다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아파지는 거죠.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	도전해야 해. 새로운 것을 자꾸 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
‘삶은 달걀이야. 작지만 완전한 우주지.’	달걀 안에는 생명이 있듯이 작고 연약해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 아이들도 작지만 완전하다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한 살이지만 완전한 우주예요. 완전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이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거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 같아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질문과 비슷해요.

읽은 후

1. 삶은 < > 그림책 만들기

■ 그림책 속 비유 확인

- 삶은 달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삶은 달걀은 먹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 이런 비슷한 말이 더 있을까요?

예) 삶은 달걀, 삶은 파스타, 삶은 옥수수, 삶은 감자, 삶은 고구마, 삶은 콩, 삶은 브로콜리, 삶은 고기, 삶은 떡, 삶은 브로콜리, 삶은 채소, 삶은 라면 등

■ 그림책 만들기

-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비유하는 표현을 담아 그림책을 만들어 봅시다. 위에 나온 비슷한 말들을 활용해도 되고, 삶은 음식 말고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해도 됩니다.
- A4용지를 이용하여 미니북을 접어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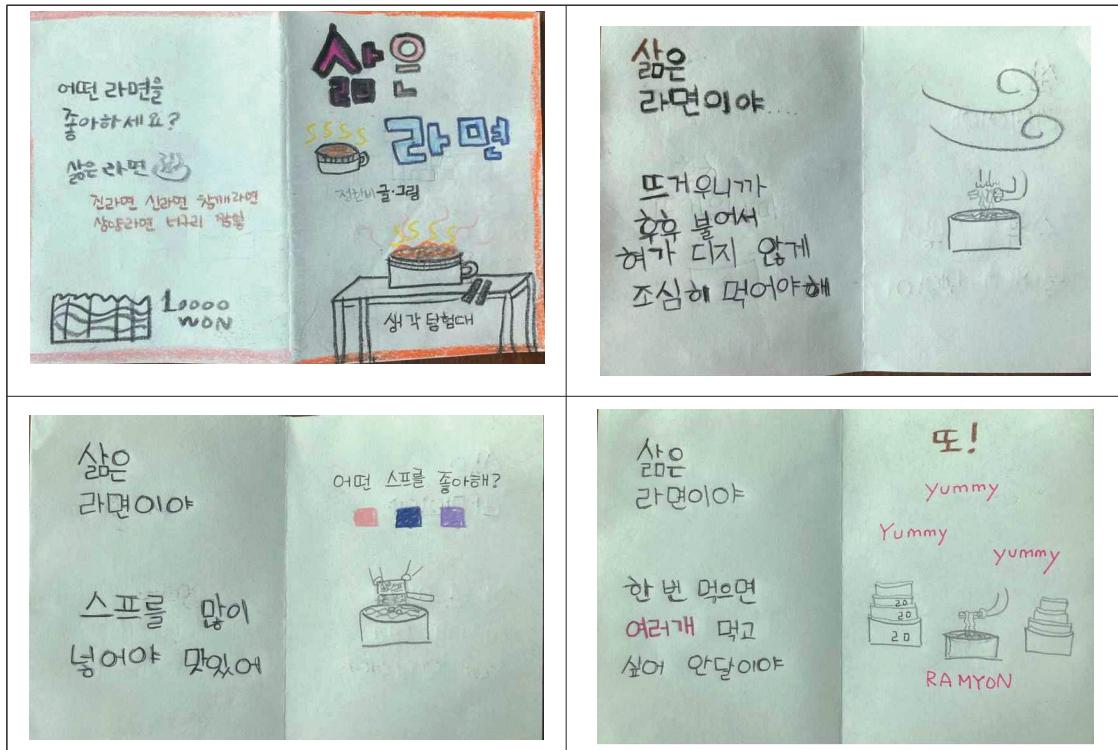
【만드는 방법】

- ① 삶을 비유하고 싶은 사물을 정합니다.
- ② 그것을 정한 이유를 세 가지 찾아 문장으로 만듭니다.
- ③ A4용지로 미니북을 접습니다. 글과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여 완성합니다.
- ④ 표지와 내용을 적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합니다.
- ⑤ 완성한 스크랩북은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며 감상합니다.



a4용지로
미니북 만들기
영상 참고

(예시 작품)



■ 작품 발표와 소감 나누기

-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봅시다.

예) 삶은 양배추야. 푸푹 찔수록 달콤해져.

삶은 파스타야. 먹을수록 맛있어서 또 먹게 되지.

삶은 나무야.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 나도 변하지.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소감을 나눠 봅시다.

예) 삶은 라면이라고 하니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저도 삶이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어떤 것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삶은 달걀, 삶은 감자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찾는 게 재밌었어요.

2. 글과 그림을 반대로 표현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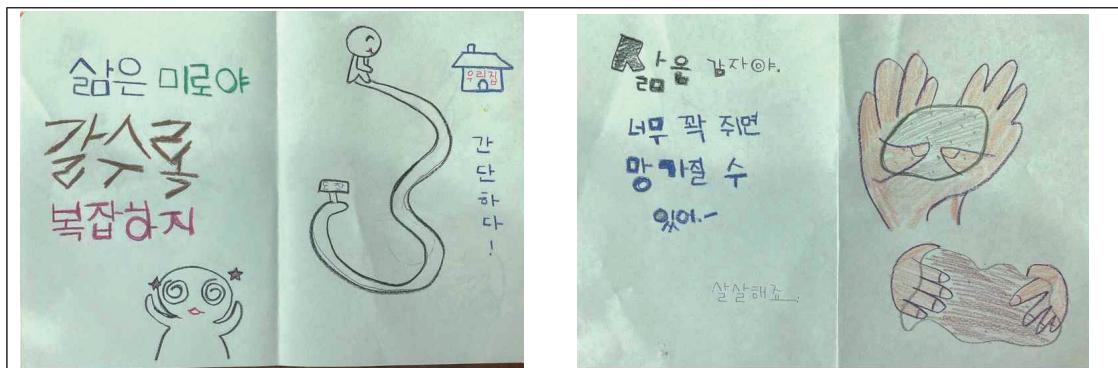
■ 반대로 표현하기

- 이 그림책에서는 문장과 그림이 반대로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 여러분이 만든 그림책의 한 문장을 골라 그 의미가 반대인 그림을 그려 봅시다.

예시 작품)



- 여러분의 그림만 보여 주고 어떤 문장이 적혀 있을 것인지 예상하며 맞추어 봅시다.

예) '삶은 미로야. 갈수록 복잡하지'라는 문장은 가지고 그림만 보여 주었더니 '삶은 미로야 도착 지점으로 가면 되지'라고 말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 '간단하다.'라는 말을 추가로 넣었어요.

'삶은 감자야 너무 꽉 쥐면 망가질 수 있어'라는 문장을 가지고 그림만 보여 주었더니 친구들이 삶은 감자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소감 나누기

- '삶은 달걀'을 읽고 비유하는 표현 활동을 해 보니 어땠나요?

예)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반대로 표현하기 활동은 퀴즈를 푸는 것 같이 재미있었어요.